조선일보 - 1929. 11. 19/ 4면/ 7단

善惡-倫理學的 硏究(七)

韓稚振

그러나 그 子의 行動으로서 受하는 그 父의 不平感은 子의 自服 後悔까지 하게 되고야마는 偉力을 가졋슨즉, 이야말로 그 竊取 行動의 이로운 行動보다 그 行爲에 對한 道德的 情念이 더욱 强하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다. 이래서 行動에 結果보다 그 行動으로 因하야 起하는 眞正한 感念을 더 重要하게 보려는 것이다. 勿論 目的的 理論을 主張하는 우리도 以上 論意를 認定한다. 同時에 그 道德的 感情이라는 것은 事實上 目的理論의 見地에서 만히 正當化할 수 잇다는 것이다. 이럼으로 德化 感情을 論하야 目的的 理論을 反對하랴는 것은 차리리 吾人의 意見을 堅實케 함에서 不過하다. 우리는 以下에 그 理由를 說明하려 한다.

엇더한 不正한 行動은 비록 첫 번 보기에는 尋常한 것 같고 害 업는 것가티 보이나, 그 行動의 危險한 點은 實로 거기에 對한 習慣의 形成 出現이다. 아까 例示한 人의 子의 竊取 行爲는 그 子息으로 하여금 竊取의 習慣을 作하게 하는 것이다. 그이가 한번 截取하여어든 效果를 보고는 後日에 同一한 境遇를 當할 時에는 必히 截取할 生覺이 比較的 쉽게 發한다. 이러므로 한번 두 번 截取하다가는 乃終에는 專門的 竊取者가 되기 容易하다. 누구나 맨처음에 虛言을 할 時에 將來 虛言者가 되리라고 豫言치 못하엿슬 것이다. 그러나 虛言者치고 첫번으로 虛言 아니하고 된 者가 또 잇섯스랴. 習慣은 第二天性을 짓는다는 말도 잇거니와 그 習慣의 發現은 第一 行動에서 始作되는 것을 잇지 말어야 한다. 사람의 참 自由라는 것은 第一 엇던 行動에 在한 것이고, 그 行動에 第二次 發見은 벌서 □□ 이런 것을 우리 本性에 附接케 한다. 이럼으로 한번 犯罪한 者는 두 번 犯罪하기 쉽게 되고, 三番, 四番으로 上한두새 그 行動이 容易하게 作한다. 이와 反對로 한번 善한 일을 한 者는 두 번 善한 일을 比較的 쉽게 하야 乃終에는 惡보다 善하기를 爲主하는 習慣이 된다. 이러한 理致로 以上에 示한 小子의 截取 行動을 父의 要求대로

自服 後悔하지 아니하엿드면 그 子의 將來 運命은 悲慘하엿슬는지도 不知이겟다. 이래서 비록 그 子의 行動이 輕한 듯하되 그 將來的 影響으로 말하면 그 子의 運命을 判定하게 되는 것이다. 이 點에 잇서 그 父의 不平感은 正當하다 한다.

엇던 特殊한 行動은 비록 以上과 如히 그 行動者에게만 習慣을 取長할뿐 아니라 그 周圍에까지 同一한 習慣을 자라게 한다. 이리하야 一個人의 行動은 마츰내 民族性을 産하게 하는 可能性은 가졋다. 一個人의 習性이 그가 屬한 民族의 特性으로 變轉하게 되는 道路는 兩 方面으로 到達하나니 곳 模倣과 復讐이다. 野草의 種子가 空中에 飛하야 도라 다니다가 沃土에 落하면 繁盛하고 砂土에 墮하면 衰하듯이 人의 行動도 그 周圍에 種子를 播하야 놋는다. 누가 엇던 사람에게 商業上이나 交際上이나 詐欺를 受하엿다 하면 그 詐欺를 回復하기 爲하야 欺滿者를 對抗하거나, 不然일 것 가트면 그 隣近人에게 復讐하는 것이다.